

## 경춘선 공연음란범 관련, '늑장 대처에 용의자는 도주' 보도는 사실과 다릅니다.

< 보도 내용 (YTN, 1.4) >

◆ 지하철서 '음란행위' 신고했지만... 늑장 대처에 용의자는 도주

- 지하철 치안을 맡는 철도경찰대에서 출동이 늦어지는 등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아직 해당 용의자의 행방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.

□ “지하철 치안을 맡는 철도경찰대에서 출동이 늦어지는 등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아직 해당 용의자의 행방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”는 보도는 사실과 다릅니다.

- 사건이 발생한 '23년 12월 31일(일) 서울지방철도경찰대 청량리센터는 유관기관, 피해자 등으로부터 전동차 내에서 발생한 공연음란 행위에 대해 신고를 받은 바 없습니다.

\* 피해자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현장출동하여 피해신고 접수 및 초동조치

- 이후, '24년 1월 2일(화) 서울중앙경찰서로부터 해당 사건을 접수받아 현재 주변역 CCTV 영상검색, 용의자 동선확인 등 초동수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, 신속하게 용의자를 검거할 예정입니다.

※ 철도에서 범죄 발생 시 철도범죄신고 앱이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철도보안정보센터(1588-7722)에 신고

담당 부서	철도특별사법경찰대 기획과	책임자	과 장	송창용 (042-615-5863)
		담당자	보안계장	김정봉 (042-615-5867)